

# KOTRA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일일 동향 보고

- 8.19(수), 코로나19 비상대책반 -

## 1. 서남아지역본부

### □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 현황 (총 2,767,273명 확진, 64,531명 신규확진, 52,889명 사망)				
	연번	지역	누적확진자	신규확진자	사망
	1	안다만&니코바르제도	2529	84	30
	2	안드라프라데시	306261	9652	2820
	3	아루나찰프라데시	2875	134	5
	4	아삼	82201	2534	203
	5	비하르	109498	3191	476
	6	찬디가르	2305	89	30
	7	차티스가르	16833	808	158
	8	다드라나가르하벨리	1951	43	2
	9	델리	154741	1374	4226
	10	고아	12333	339	116
	11	구자라트	80802	1092	2820
	12	하리아나	48936	896	557
	13	히마찰프라데시	4235	61	19
	14	झमु&카슈미르	29326	434	561
	15	자르칸드	24477	725	262
	16	카르나타카	240948	7665	4201
	17	케랄라	47898	1758	175
	18	라다크	2010	44	17
	19	마드야프라데시	47375	990	1141
	20	마하라슈트라	615477	11119	20687
	21	마니푸르	4765	78	18
	22	미조람	860	71	0
	23	메갈라야	1457	39	6
	24	나갈랜드	3520	65	8
	25	오디샤	64533	2239	362
	26	푸두체리	8396	367	123
	27	편잡	34400	1704	898
	28	라자스탄	63977	1347	898
	29	시킴	1207	20	2
	30	타밀나두	349654	5709	6007
	31	텔랑가나	95700	1763	719
	32	트리푸라	7645	236	65
	33	우타라칸드	12961	468	164
	34	우타르프라데시	162434	4218	2585
	35	웨스트벵갈	122753	3175	2528
-	총계	2767273	64531	52889	
*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19일 오전 8시 기준 *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10위에 포함되며,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					

국가 (무역관)	내용
	<p>○ 인도 일일 신규확진자, 사흘 만에 다시 급증하며 6만 명 대 상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일(19일) 집계된 인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만4천5백31명으로, 지난 이틀간 5만 명대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6만 명 대로 증가 (17일: 57,981명, 18일: 55,079명)</li> <li>- 코로나19 회복률은 73.18%로 상승하였으며, 사망률은 1.92%로 하락</li> <li>- 州별 누적확진자 순위는 마하라슈트라州가 615,477명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타밀나두州(349,654명)가 2위</li> </ul> <p>*Hindustantimes <a href="https://bit.ly/3283nea">https://bit.ly/3283nea</a> 08.19 *ZeeNews <a href="https://bit.ly/34ckyy0">https://bit.ly/34ckyy0</a> 08.19</p> <p>○ 인도정부, 한국 등 13개국과의 국제선 운항 재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일(화) 하르디프 싱 민간항공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현재 운항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더불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과의 국제선 운항 재개 논의 중</li> <li>* 現 국제선 운항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UAE, 카타르, 몰디브</li> <li>** 추가 논의 대상 13개국: 한국, 호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바레인, 이스라엘, 케냐,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li> <li>- 인도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음</li> </ul> <p>*Livemint <a href="https://bit.ly/31aW46c">https://bit.ly/31aW46c</a> 08.18</p> <p>○ 아삼州정부, 21일(금)부터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의무 검사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일(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삼 정부는 내달 1일(화)로 예정된 학교 및 교육 시설 운영 일부 재개에 대비하여 역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li> <li>- 해당 일자에 교직원 근무 및 시설 운영은 재개되나, 학생 등교의 경우 추후 중앙정부의 관련 허가 및 지침 발표 이후 정상화될 예정</li> </ul> <p>*India.com <a href="https://bit.ly/329Hw6a">https://bit.ly/329Hw6a</a> 08.19</p>
파키스탄 (카라치)	<p>○ 파키스탄정부, 중국기업 개발 백신에 현지 임상 3상 실험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 의약규제당국(DRAP)은 중국의 캔시노바이오(CanSinoBio)와 생명공학연구소(BIBB)가 공동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현지 최초로 임상 3상 실험 승인</li> </ul>

국가 (무역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실험은 카라치 소재 2백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56일간 총 3회에 걸쳐 집중 진행</li> </ul> <p style="text-align: right;">*Times of India <a href="https://bit.ly/2EbnO1H">https://bit.ly/2EbnO1H</a> 08.18</p>

#### □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릴라이언스, 넷메즈(Netmeds) 인수로 온라인 약국사업 진출에 박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일(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릴라이언스는 약 8천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비탈릭 헬스(Vitalic Health)'와 자회사인 온라인 제약기업 '넷메즈'의 지분을 각각 60%, 100% 인수하며 온라인 약국사업 진출 도모</li> <li>- 릴라이언스는 자사 소형 슈퍼마켓 브랜드인 'Smart Point'를 통해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확장할 예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Livemint <a href="https://bit.ly/2CKQ37a">https://bit.ly/2CKQ37a</a> 08.19</p> </li> <li>○ 플립카트, 봉쇄조치 완화 이후 판매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 대주주인 월마트의 2분기 해외판매량은 272억 달러로 6.8% 감소한 반면, 총상품판매량(GMV)등을 포함한 매출액은 5.6% 증가하여 1,377억 달러 기록</li> <li>- 플립카트를 포함한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엄격한 봉쇄조치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단계적 완화 및 온라인 거래량 상승 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li> </ul> <p style="text-align: right;">*Hindustantimes <a href="https://bit.ly/2Yf5Lit">https://bit.ly/2Yf5Lit</a> 08.18</p> </li> </ul>

#### □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 삼성전자, 인도내 브랜드 평가 8년 연속 1위 달성

국가 (무역관)	내용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발표된 '2020년 인도 상위 100대 브랜드(2020 India's Top 100 Brands)*' 명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조사 첫 시행연도인 '13년 이후 8년간 연속 1위 기록</li> <li>*글로벌 마케팅기업 '캠페인아시아퍼시픽' 과 여론조사기업 '닐슨' 공동 발표</li> <li>- LG는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소니, 애플, 올라, 구글 등의 기업 또한 상위 10위권에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Techholic <a href="https://bit.ly/3l0fGlu">https://bit.ly/3l0fGlu</a> 08.19 *뉴시스 <a href="https://bit.ly/2E6arQJ">https://bit.ly/2E6arQJ</a> 08.19</p>

#### □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국가 (무역관)	내용
인도 (벵갈루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데이터·AI 활용으로 2025년까지 GDP 최대 5,000억 달러 성장 예상</li> <li>- 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NASSCOM)에 따르면, 데이터·AI 활용으로 인도 GDP는 2025년까지 4,500억 달러, 5,000억 달러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 또한, 데이터·AI 활용 촉진은 인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인도가 데이터·AI 서비스 부문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 Live Mint, 8.18.</p>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연계인센티브(PLI) 효과로 탈중국 기업의 인도 이전 확대</li> <li>- 18일(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정부가 해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한 5년간 46%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라바(Lava),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 등 글로벌 기업 다수의 현지 공장 설립 예상</li> <li>- 인도전자전기협회(ICEA)는 해당 휴대폰 제조업체의 인도 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기 생산량이 기존 정부 예상치(11조)에 비해 대폭 상승한 약 27조5천억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li> </ul> <p style="text-align: right;">*MoneyControl <a href="https://bit.ly/34fqBCa">https://bit.ly/34fqBCa</a> 08.18</p>

국가 (무역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정부, 현대차 등 해외자동차기업 현지 법인에 로열티 인하 요청</li> <li>- 금일(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상공부는 현대차, 마루티스즈키 등 해외자동차기업의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모기업에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로열티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li> <li>- 인도정부는 지난 '09년 해외투자규정 완화 이후 지속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로열티 규모를 수익의 2%로 제한하였으나 해외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 감소 및 반발을 우려하여 5%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Cronicle <a href="https://bit.ly/3heelVZ">https://bit.ly/3heelVZ</a> 08.19</p>